

<김효규: 소아과영역의 기관지천식 치료 최초 경향. 소아과 1958;1:15-8>를 읽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편 복 양

1958년 대한소아과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소아과' 제 1권 제 1호에 '소아과영역의 기관지천식 치료 최초경향'이란 제목의 중설이 게재되어 있었다.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대단히 감격스럽고 흥미로운 제목이었다.

천식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유병률의 증가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급증한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이다. 2000년도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실시한 역학 조사에 의하면 국내 초등, 중학생의 천식 유병률은 12.8%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주 상병에 의한 천식 환자 수도 1999년에 환자 10만 명당 15.3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22.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조사한 천식의 사회적 비용은 4조 1,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와 지침서의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50년 전의 천식 치료 경향과 최근의 치료 경향에서의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천식의 병태생리에서 50년 전에는 기관지 모세혈관 확장과 투과성 증가로 인한 기관지의 부종과 기관지벽 평활근의 수축, 기관지 점막선분비 과다로 인한 기관지 협착 또는 폐색으로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병태생리에 가역성 기도 협착과 기도 과민성, 기도 개형(airway remodelling)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둘째로 치료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그 당시에도 천식 치료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급성 천식 발작시의 치료와 발작간혈기의 치료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도 천식의 치료는 급성 천식 발작 증상을 치료하는 증상완화제(reliever)와 증상이 없을 때에도 기관지 내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조절제(controller)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미 50년 전부터 천식의 치료는 증상이 있을 때의 치료 뿐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치료 약제를 보면 급성 천식 발작의 치료로 당시에는 교감신경자극제로 epinephrine이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최근 약 10년 전까지도 급성 천식 발작의 치료로 epinephrine이 추천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교감신경자극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관지확장효과를 최대화 한 선택적 β_2 -항진제들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epinephrine은 중증 천식 발작으로 인해 흡입 치료조차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ephedrine과 phenobarbital을 동량으로 혼합하여 ephedrine의 신경 자극 증상을 완화하고 천식으로 인한 불안감 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증 천식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의 기관지확장제로 epinephrine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aminophylline을 정맥, 직장 내, 또는 경구 투여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증 천식 발작 시 정맥 주사하는 것으로 권유되고 있으며, 서방형 테오필린 제형이 개발되면서 증상완화제로서 보다는 천식 조절제로서 저용량을 지속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거담제로 potassium iodide, ammonium chloride, ipecac syrup 등이 추천되고 있었으나 역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장 차이점은 corticosteroid의 사용이라 할 수 있겠다. 50년 전 당시 천식 치료에는 ACTH와 cortisone은 천식 치료에 유효하나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식 치료의 1차 선택약으로 corticosteroid의 사용이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식의 병태생리에 있어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주된 소견이며, 이로 인한 기도 개형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스테로이드의 개발과 제형의 개발되어 최근에는 천식 조절제로서의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강조되고 있다.

1968년 Johanson과 Ishizaka에 의해 IgE가 발견된 이후 원인 항원에 대한 특이 IgE 항체 등 검사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한 면역치료(specific immunotherapy)가 천식 치료의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50년 전에 비하여 천식에 대한 병태생리, 유전학적인 연구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leukotriene 조절제, 항 IgE 제제 등의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어 천식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천식의 치료가 약제 뿐 아니라 천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교육은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 뿐 아니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천식 치료의 체계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 Global Initi-

ative for Asthma(GINA)가 조직되어 천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워크샵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NHLBI/WHO Workshop Report, Global Strategy for Asthma Management and Prevention의 형태로 천식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지침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에서 소아와 성인의 천식 치료 지침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그 4번째 개정판을 발간하

게 되었다.

‘2007 소아 청소년 천식 진료가이드라인’은 2006년 GINA Guideline을 참고로 하여 최근 천식 치료와 분류, 진단의 변화들을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맞추어 천식을 정확히 진단하고, 천식 증상의 조절 개념을 통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개정하였다.